

‘경제를 좀 더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그 때마다 나는 주저 없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추천한다. 이 책이 발간된 해는 1776년이니까 벌써 230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다른 과학처럼 경제학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으므로,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기껏해야 경제학설사의 연구에나 필요한 책으로 보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경제학의 경전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우선, 이 책은 ‘과학’ 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알려주는 가르쳐준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경제현실을 관찰하여 그 속에서 법칙성을 발견하고 운동원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어떤 논리를 전개하면 반드시 현실의 사례를 들어 그 논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만,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흔히 관념의 함정에 빠져서 현실에 배치되는 논리를 자주 전개하곤 한다. 예를 들어, 현대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르치는데, 통화량과 소득수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결정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할 따름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더 많아지면 가격이 내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논리는 현 경제학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가격결정의 운동원리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념은 현실을 이길 수 없다. 관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데 비해, 현실은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대의 경제학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혜의 보물들이 이 책의 곳곳에 숨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대 경제학이 간과해버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들어보자. 제1편 제8장 ‘노동의 임금에 대하여’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노동임금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그것의 계속적인 증가이다.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부

경제학의 보물창고,  
우리가 《국부론》을 좀 더 이해했다라면

유한 나라들이 아니라, 가장 번영하고 있는 나라들, 즉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잉글랜드는 오늘날 분명히 북아메리카의 어떤 지방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노동임금은 잉글랜드의 어떤 지방에서보다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높다.”

만약 이 구절의 학문적 중요성을 현대 경제학계가 충분히 인식했다라면, 소득이론에도 ‘한계’의 개념을 이미 도입하여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계는 이미 19세기에 ‘한계’의 개념을 가격이론에 도입하여 경제학에 혁명을 불러온 바 있다. ‘재화의 총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단위의 효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한계혁명이 바로 그것으로서,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가치의 역설’, 즉 ‘물과 공기는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재화이지만 가격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반면에, 쓸모가 거의 없는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경제학계의 숙제를 간단하게 해결해버린 것이다. 물과 공기는 풍부해서 최종 단위의 효용이 거의 없고 이에 따라 가격도 거의 없는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희귀해서 최종단위의 효용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가격이 아주 높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만약 가격에 적용했던 한계의 개념을 소득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의 증가액이 경기동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액의 한계치 즉 소득증가의 속도가 경기동향을 결정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경기가 호조인가 부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의 상승인가 하강인가가 경기의 향후 동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지하 7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옮겨간 것은 여전히 낮은 층에 있지만 올라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상 10층에서 지상 7층으로 옮겨간 것은 여전히 높은 층에 있지만 내려간 것이 사실이다. 경기흐름도 이렇게 읽어야 향후의 동향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현 경제학계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래서 경기의 향후 전망은 물론이고 현재 흐름에 대한 진단조차 자주 틀리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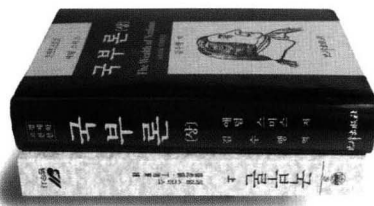
한계 개념을 소득이론에 도입하면, 경제성장이 왜 중요한가

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장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의 삶은 더 여유롭고 윤택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1/3에 불과하지만 생활의 여유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친구에게 술 한잔 사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 선술집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의 여유가 많은 것이다.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은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지만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들부터 당하고, 망해도 영세 기업부터 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밖에도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워야 할 점은 많으며, 지혜의 보물들도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 지혜의 보물창고를 탐색하는 일은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껍질을 줍는 것만큼이나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 책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신천지를 개척한 획기적인 저술이라는 역사적 의의도 함께 가지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화장실에 이 책을 비치해두고 있다. 하루 또는 이틀에 한번쯤은 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번역이 이 책의 중요성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국부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일 고찰”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차라리 “국부의 본질과 근원에 관한 탐구”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습관상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그만 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www.ecnms21.pe.kr](http://www.ecnms21.pe.kr)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왕성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경제역적들아 들어라》 등이 있다.



《국부론》 애덤 스미스 지음 | 최호진 옮김 | 범우사 | 606쪽 | 값 13,000원  
《국부론》 애덤 스미스 지음 | 김수행 옮김 | 비봉출판사 | 602쪽 | 값 22,000원